

한나라 '총체적 해이'... 재보선 휘청

돈 공천·과태료 대납 이어 이번엔 후보 매수

'지도부 책임론' 제기도

24일 전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대회의장에서 “한나라당이 집권 후에도 부패하러면 집권을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전여욱 최고위원도 지난 23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에 실망하고 있다. 싸움 의지도, 스피드도 없는 초식공룡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지율과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범 여권을 압도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기에 당내 고위급 인사들의 강성 발언이 쏟아지는 것일까. 일단 정치권에서는 ‘대세론’에 안주해 왔던 한나라당이 내부 요인에 의한 위기 국면을 맞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경기도 안산의 돈 공천 사건, 대구 서구 과태료 대납 사건, 경남 거창 후보 매수 사건 등 쏟아지는 악재

에다 4·25 재·보선의 관세 또한 간단치 않다. 50%에 육박하는 당 지지도가 무색할 정도로 재·보선 선거 현장에서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고전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재·보선 초반만 해도 ‘불패 신화’를 내세우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던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그동안 ‘대세론’에 안주하며 당을 이끌어 왔던 지도부의 안이한 현실 인식과 무관치 않다며 벌써부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룰 결정 과정 등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대립각에 위축되며 기계적 중립성을 보여주는데 급급하면서 당내 분위기를 휘어잡지 못해 이러한 위기국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위기 국면의 핵심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과열 경쟁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4·25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엔 두 사람 모두에게 불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보선 결과를 놓고 ‘내 탓’ 공방이 치열해지고 추후 여론조사 비용 반영 방식 등 경선 세부사항을 둘러싸고 양측의 대립이 격해진다면 한나라당의 위기 국면은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선 성격이 좋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지도부 책임론은 물론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갈등 등으로 자중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범여권 대통합 가시화 등 외부적 요인이 가세할 경우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상당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우리당, 한나라 비리·부패 집중 제기

열린우리당은 4·25 재보선을 하루 앞둔 24일 한나라당의 비리·부패상을 집중 제기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우리당은 최근 연이어 터진 한나라당의 돈 공천 및 후보 매수, 선거법 과태료 대납 의혹 사건이 표심을 벌여 권 쪽으로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세균 의장 등 지

도부가 총출동해 대국민 설득에 진력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김재섭 대표 지역구 사무국장의 과태료 대납사건과 관련,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서 부패·비리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응분의 조치를 한나라당에 요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열린우리당 탈당 그룹이 주축인 중도개혁통합신당이 24일 오후 광주시 동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광주시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통합으로 국민에 희망줄 것”

‘통합신당’ 광주시당 발기인대회

열린우리당 탈당그룹이 주축이 된 ‘중도개혁통합신당’이 24일 오후 광주시 동구 동명동 오페라하우스에서 양형일·염동연 국회의원 등 발기인 75명과 관련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당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중도개혁통합신당 광주시당은 발기인대회 취지문을 통해 “현재 중도 개혁세력은 사본오열매 수구세력에서 정권을 바치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도개혁세력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중도대통합을 통해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다.

통합신당은 이어 “중도개혁통합신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외부인사의 참여가 보장되는 국민통합 정당으로써 민생 실천정치, 한반도평화체의 정착을 이끌어 갈 강력한 국민대통합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광주시당 발기인대회에서는 양형일 국회의원이 광주시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를 맡았으며 김종직 전 서구청장, 김화진 한국나눔운동 연합회 광주시회장, 박종균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 방영철 변호사, 배응태 광

주 동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서경석 조선대 교수, 송병태 전 광산구청장, 신재성 전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 신홍수 광주·전남주요소회회장, 양혜령 대한여자차과외사회 부회장, 염환석 광주대 교수,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 이승재 변호사, 이정남 광주시의사회장, 임택 전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 장순복 호남대 교수, 조기선 변호사, 진용태 변호사, 탁영환 광주전남 개혁연대 지방분권위원장, 한화진 광주여대 교수 등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동익 의사협회장 ‘정치권 돈 로비 녹취록’ 파문

“의원 3명 月 200만원씩 후원”

장 회장 “30일 사표 제출 계획”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의장의 국회의원 로비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장 회장의 주요 발언 내용은 “한나라당 2명, 열린우리당 1명 등 국회의원에게 200만원씩 정기적으로 후원해 왔고, 다른 의원에게는 1천만원을 줬다” “카드까지 해가지고 (의협이) 총무가 가서 한나라당 보좌관 9명을 완전히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 본부 회장이 (복지부에 대해) 골프 접대하고 거마비도 집어주고 다 했는데, 그걸 막고 또 탄소라들 하고 있다”는 것.



장동익 의협회장이 정치인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발언은 지난달 31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의협 대의원대회에서 장 회장이 직접 말한 것으로 녹취록을 통해 일부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장 회장은 24일 자신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말하다 보니 과장되고 사실보다 부풀려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오는 30일 협회에 사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의원들에게 매월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발언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협 의건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 실무자들과 100만~200만원의

있었는데 재경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복지위의) 모 의원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우리 회원 일부가 그 의원에게 후원금을 했는데 그것이 와전됐다”며 “후원금이 라는 말을 빼먹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2~3일 내에 후원금 영수증을 받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에서 조사한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치권은 장 회장 발언에 발끈했다. 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장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강 의원은 “검찰은 정치자 금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한층 의혹도 없이 진실규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위 회의에서 “나는 200만원은 커녕 2만원도 장 회장에게 받은 적이 없다”며 “복지위 의원들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꼴”이라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보건복지부도 ‘복지부 사람들에게 골프 접대하고 거마비도 집어줬다’는 장 회장 발언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천만원 현금 제공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 국회에 한 법안이 발의돼

경비가 소요되는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가진 것을 과장해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의협 내부 암투... 반장동익 세력이 공개한 듯

■ ‘로비파문’ 왜 나왔나

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파문이 불거져 나온 것은 내부 암투의 결과로 해석된다.

장동익 회장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끊임없이 탄핵 위기에 시달려 왔다. 회장 당선 과정에서도 8명의 후보가 난립, 전체 회원의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21.89%의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정통성 훼손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협회 내 반 장동익 세력이 자리

잡으면서 실제 장 회장은 지난해 10월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 당할 뻔 한 적도 있다.

이번 장 회장 발언이 외부에 유출된 것도 이 같은 맥락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장 회장은 내부 감사를 받으면서 일부 옹척이 감지됐다고 한다.

결국 이번 로비 파문은 장 회장 반대세력에 의해 녹취록이 공개된 것으로 보여지나 의협과 국회의원과 보좌관, 보건복지부 관료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장 회장의 사퇴로 사태가 수습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회장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해명서에서도 “지난해 5월 1일 회장 직무 시작 전 이후로 의협 회장 자리를 노리는 일부 혼드는 회원들이 회장을 상대로 6건의 고소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5월 1일 첫진도 시작반 (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공무원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수강률 1위! 만족도 1위! 합격률 1위! - 새로운 도전이젠 한빛이 경쟁력이다

79금 공무원전강좌
 두배 빠른 합격시스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대형 호텔급 학원! 최강의 프로강사진!
 누가 뭐래도 "역시" 한빛고시학원입니다.

이구동성! 한빛이 최고!
 개강 5월 1일 (주/야간반)

공무원학원의 1등브랜드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론 북구청앞
 (062)234-0234

자매학원 : 김영편입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론 북구청앞 262-3553)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에 의한 복사열은 시온구 연결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쪼짐효과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핑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칼레오 필름난방은 당일 시공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안심하세요.
 타제품 열선대신 탄소면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파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